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키움증권

미 증시, CPI 경계심리에도 낙폭과대 인식 및 전쟁 노이즈 완화로 강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8일(월) 미국 증시에서는 5월 CPI 경계심리, 신규 AI 실망감에 따른 애플(-1.9%) 약세에도, 미-이란 군사 공격 중단 소식, 5월 뉴욕 연은 기대인플레이션 둔화(4월 3.6% → 5월 3.5%), 마이크론(+9.9%) 등 반도체주의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S&P500과 나스닥은 반등(다우 -0.2%, S&P500 +0.3%, 나스닥 +0.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6%).

연초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 반도체주 상승 → 미국 반도체주 상승 → 다음날 국내 반도체주 상승”의 긍정적인 루프가 작동해왔던 상황. 그러나 지난 금요일과 이번주 월요일에는 “금요일 국내 반도체주 급락 → 미국 반도체주 급락 → 월요일 국내 반도체주 급락”과 같은 부정적인 루프가 일시적으로 형성됐던 것으로 판단.

이 같은 부정적인 루프의 촉매는 미국 금리상승이 제공했기에, 당분간 연준 긴축 우려, 인플레이션 경계심리를 안고 가야할 수 있음. 다만, 연준 정책, 인플레이션, 금리 등 이번 장에서 매크로 불확실성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미-이란 전쟁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상기해볼 시점. 현재 협상 중에 “공격 재개 → 중단 → 재개”를 반복하면서 혼선을 유발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 WTI 유가의 상방 압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전쟁 수습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

또한 최근 상승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던 반도체 등 주도주의 주가 상승 속도 및 레벨 부담도 지난 2거래일간 연쇄 급락을 통해 일정부분 덜어냈다는 점도 중립 이상의 요인. 이번주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난 폭락의 여진이 변동성을 만들어 내겠지만, 현 시점에서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전략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5월 고용 호조발 연준의 금리인상 불안감 재점화,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급락 출발한 이후 장중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10% 가까운 폭락세로 마감(코스피 -8.3%, 코스닥 -9.1%).

금일에는 미국 반도체주의 반등, 코스피200 야간선물 5.5%대 강세, 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달러/원 환율 폭등세 진정(현재 1,520원대) 등에 힘입어 반도체 등 낙폭과대 주도주를 중심으로 전일 폭락분을 만회해 나갈 전망.

5월 이후 미국,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쏠림 현상이 만들어낸 랠리를 연출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그 반대급부 현상인 단기 조정 혹은 숨고르기 국면을 대비해왔던 상황. 문제는 서킷브레이커까지 맞을 정도로 조정의 강도가 격하다 보니, 매수에서 매도로 전면적인 포지션 변화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

그러나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될 정도의 악재가 출현한 것인지도 생각해볼 시점. 전일 제외하고 코스피 역사상 서킷 브레이커는 2000년 닷컴버블 붕괴(4월 17일, 9월 18일), 2001년 9.11테러(9월 12일), 2020년 3월 팬데믹(3월 13일, 3월 19일), 2024년 8월 엔-캐리 청산(8월 5일), 2026년 3월 미-이란 전쟁(3월 4일, 3월 9일) 등 총 8회 출현했음.

여기서 과거 서킷 브레이커 발동 후 주식시장이 주가 회복력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후 D+5 영업일 기준으로 8번의 사례 중 7번의 사례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 코스피의 평균 수익률 관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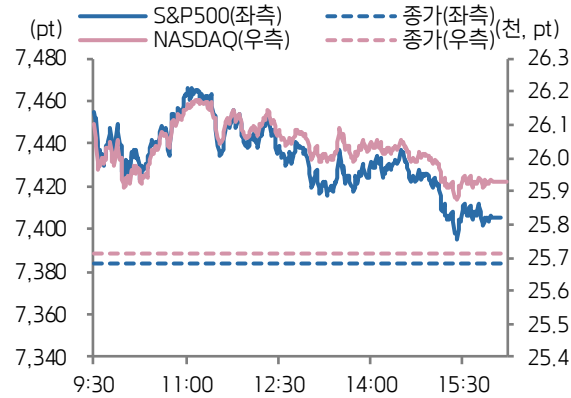
서는 D+5일 +4.5%, D+20일 +6.8%, D+60일 +31.8%로 집계됐다는 점도 역대급 폭락 이후 주식시장의 회복력을 뒷받침. 코스닥 역시 D+5일 +8.6%, D+20일 +10.3%, D+60일 +19.6%로 회복 탄력성이 존재.

일단 전일 미국 증시의 반등 성공 소식이 국내 증시에 반등의 계기를 제공할 전망. 물론 전일 폭락 충격이 이번 반등을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는 수요 vs 신규 진입 기회로 삼는 수요”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주중 남은 기간 동안 변동성 확대 국면은 이어질 전망.

우선 단기 저점은 올해 3월 조정장 중 선행 PER 저점 레벨인 7.1배를 적용해 7,300~7,400pt로 제시. 주중 미국의 5월 CPI, 오라클 실적, 스페이스 X 상장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7,400pt를 하향 이탈할 수 있겠으나, 일시적인 언더슈팅으로 보는 것이 타당. 이익 모멘텀 가속화(YoY 기준,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증가율은 5월 +222% → 6월 +229%), 여타 증시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선행 PER 약 7.2배 vs 미국 21배, 일본 17배, 독일 15배, 신흥국 12배) 등 이번 강세장의 고유 상승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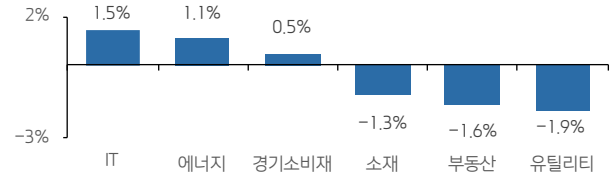
결국, 이번 조정은 펀더멘탈발 조정(반도체 이익 피크아웃, 정책 동력 상실, 대형 외부 충격 임박 등)이 아니라 주도주 중심의 과도한 쏠림 현상과 높아진 레벨 부담이 초래한 조정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이는 기존의 강세장 추세를 위협할 정도의 연쇄적인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시사. 따라서, 7,400pt 이하에서는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 MLCC 등 AI 밸류체인주, 양호한 실적 대비 5월 이후 급락이 심했던 증권, 유통, 방산, 조선 등 여타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비중 확대에 나서는 것이 적절.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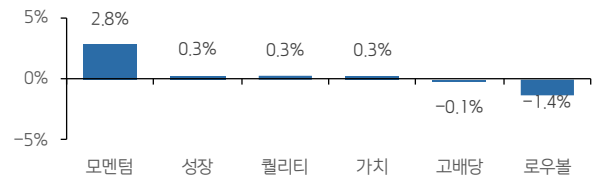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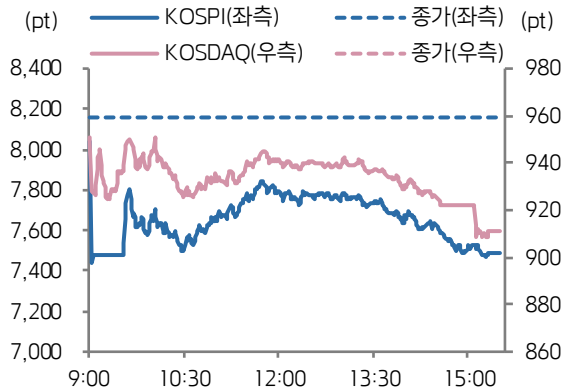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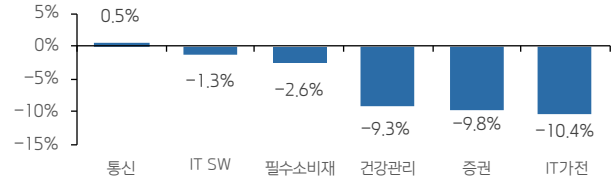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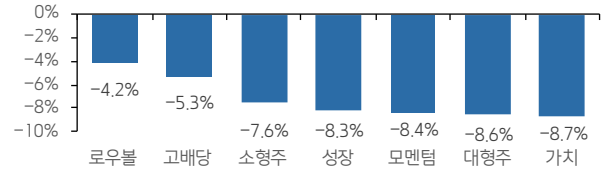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301.54	-1.89%	+11.12%	GM	83.77	+2.02%	+3.48%
마이크로소프트	411.74	-1.18%	-14.48%	일라이릴리	1,149.15	+1.57%	+7.29%
알파벳	363.31	-1.36%	+16.22%	월마트	119.83	+0.8%	+7.98%
메타	585.39	-1.28%	-11.24%	JP모건	311.11	-0.4%	-2.52%
아마존	245.22	-0.33%	+6.24%	엑손모빌	151.75	+1.22%	+27.8%
테슬라	408.95	+4.59%	-9.07%	세브론	189.24	+1.03%	+26.53%
엔비디아	208.64	+1.73%	+12.01%	제너럴일렉트릭	119.83	+0.8%	+8%
브로드컴	396.60	+2.82%	+14.83%	캐터필러	915.64	+1.26%	+60.51%
AMD	490.33	+5.14%	+128.95%	보잉	215.92	+0.22%	-0.55%
마이크론	949.28	+9.87%	+232.74%	넥스트에라	84.01	-2.1%	+6.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7,484.41	-8.29%	+77.6%	USD/KRW	1,526.50	-2.08%	+6.04%
코스피200	1,186.54	-8.52%	+95.81%	달러 지수	99.99	-0.08%	+1.69%
코스닥	911.39	-9.08%	-1.52%	EUR/USD	1.15	+0.1%	-1.8%
코스닥150	1,586.33	-10.27%	+2.52%	USD/CNH	6.78	-0.09%	-2.74%
S&P500	7,405.73	+0.3%	+8.18%	USD/JPY	160.16	-0.08%	+2.2%
NASDAQ	25,929.66	+0.86%	+11.56%	채권시장			
다우	50,786.01	-0.16%	+5.66%	국고채 3년	3,930	+5bp	+97.9bp
VIX	18.92	-12.04%	+26.56%	국고채 10년	4,345	+9.3bp	+96bp
러셀2000	2,855.42	+0.77%	+15.05%	미국 국채 2년	4,162	+1.5bp	+68.9bp
필라. 반도체	12,906.69	+5.61%	+82.22%	미국 국채 10년	4,562	+3.2bp	+39.5bp
다우 운송	22,132.73	+1%	+27.51%	미국 국채 30년	5,035	+4bp	+19.2bp

상해종합	3,959.34	-1.7%	-0.24%	독일 국채 10년	3.060	+2.2bp	+20.5bp
항생 H	8,341.36	-1.13%	-6.42%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3,524.26	-0.97%	-13.72%	WTI	91.30	+0.84%	+60.06%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94.25	+1.25%	+54.89%
Eurostoxx50	6,062.29	+0%	+4.68%	금	4,363.40	-0.04%	-1.73%
MSCI 전세계 지수	1,100.96	-0.44%	+8.51%	은	68.59	-0.75%	-2.86%
MSCI DM 지수	4,756.17	+0.01%	+7.35%	구리	635.00	+1.04%	+11.76%
MSCI EM 지수	1,655.26	-3.61%	+17.86%	BDI	2,981.00	-1.84%	+58.82%
MSCI 한국 ETF	185.64	+5.96%	+90.95%	옥수수	446.00	+0%	-3.15%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83.25	+0.56%	+9.79%
비트코인	63,469.80	+2.62%	-27.59%	대두	1,115.75	-0.51%	+3.86%
이더리움	1,689.54	+3.79%	-43.26%	커피	241.65	-0.19%	-24.5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